

# 경기회복 중인데... '곡소리' 나는 중기, 왜?

연일 치솟는 철강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탓에 지역 제조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중소기업이 대거 업을 상대로 납품대가 제값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영세 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값 폭등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물가인상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체결한 납품 계약도 줄줄이 취소=광주의 한 금속제조-납품업체 대표인 최모(52)씨는 작년 체결했던 납품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강관파이프를 구매해 코팅 작업을 거쳐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그는 "철강 가격 상승으로 강관파이프 가격이 50~70% 오른 탓에 계약 당시 가격조건에 납품하면 손해를 본다"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기업인 한 금속제조 업체도 마찬가지다.

해당 업체 대표인 김모(43)씨는 "1kg당 2000원 선이던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지금은 3500원 정도까지 올랐다"며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아도 대기업 등 대형을 상대로 납품대가 제값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 원자재값 천정부지

**"납품대가 제값받기 불가능"**  
원청업체 상대 계약 취소 잇따라  
건물 올리기 중단한 건설사  
"자재값 떨어질길 기다릴 수밖에"

폭등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경기회복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은 건설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철근 가격은 지난 3월 1kg당 800원에서 이달 1350원으로 68.75%나 급등했다. 건축용 철골인 H형강도 같은 기간 1kg당 900원에서 1300원으로 44.44% 올랐다.

지역의 한 건설업 관계자는 "철근 값이 올라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 자재 가격이 떨어질길 기다리고 있다"며 "완공 기간을 맞추기 힘들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 폭등 물가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 내달 '주 52시간' 전면 도입

코로나에 외국인 입국 못하는데  
근로 시간 줄이면 인력난 불보듯  
지역 영세기업 송두리째 '흔들'  
50인 미만 기업도 제도기간 쪼야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광석과 구리 등 제조업계의 핵심 원자재 가격은 최근 1년 새 50%에서 두배까지 가격이 폭등했다. 철광석은 중국현물 수입가격이 t당 218달러로 전년 대비 110%상당 오르면서 국내 유통가격도 95%상당 오른 130만원까지 치솟았다. 구리도 전년 대비 50%이상 오른 9146달러에 달한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지수는 108.50으로 전달(108.06)보다 0.4%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석탄·석유제품(4.4%), 제1차금속제품(1.6%) 등의 오름 폭이 컸다. 1년 전인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6.4%에 이르는 등 2011년 8월(6.9%) 이후 9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경기는 5개월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중소기업 212곳을 대상으로 6월 경기전망 조사를 한 결과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89.2로 전달 93.7과 비교해 4.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경영으로 요인으로 내수 부진(61.3%)과 업체 간 과당경쟁(49.5%)에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48.6%)을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전달 35.3%와 비교하면 13%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자동차용 강판과 가전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도 줄줄이 오르면서 자동차업계와 가전업계 역시 가격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아직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다음달 주 52시간 도입까지-위기의 중소기업=원자재 가격 폭등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달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점도 지역 중소기업계의 생

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심각한 자금난은 물론 인력수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영세기업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근로시간이 줄면 영세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기간 없는 주 52시간제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제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도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그랜드센트럴 임대아파트 30일 청약 접수

동구 계림동에 210세대  
도시철도 2호선 인접 역세권  
학군·생활인프라 잘 갖춰져



광주그랜드센트럴 임대아파트는 오는 30일 일반공급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함께 완공한 광주그랜드센트럴 임대아파트는 2023년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문화전당·금남로5가·금남로4가 등 도시철도와 인접한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도 지나갈 예정으로, 제2순환도로가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다.

주변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군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대인시장 등 생활인프라도 갖췄

다는 평가다. 앞서 2017년 최고경쟁률 85.2대 1, 평균경쟁률 18.1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단지 내부에서 무동산 조망이 가능하고, 입주민을 위한 휴게공간과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

총 2336세대 중 210세대를 모집하며, 우선공급이 50세대, 160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일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에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만 19세 이상 1세대 1건 세대 전원 무주택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대사무실 접수처에서 우선공급 50세대에 대한 호수배정 및

서류접수가 진행되고, 일반공급 160세대는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다음달 5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우선공급과 다르게 무작위로 호수배정을 진행한다.

당첨자들에 한해 7월6일부터 9일까지 일반공급 서류접수가 진행되고,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들은 7월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8월29일까지 약 한달간 입주가 진행된다.

광주그랜드센트럴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은 오는 29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30분) 108동 1506호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의 062-222-2339.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보이스피싱 꼼짝마"

광주은행, 광안경찰·광산구 등과 금융사기 예방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광안경찰, 광산구, 광산구의회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광호 광주은행 부행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박현석 광산구의회 부의장, 김광남 광안경찰서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경로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벌인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한 '통합 AI FDS'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 시스템으로 특이거래와 인증서비스 대응 때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정보유출 사기 등 금융사기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부도 설치했다. 최근에는 '통합 AI FDS'로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40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도 했다.

지난 한 달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는 30건, 약 5억원 상당이다. 광주은행 금융사기 예방 성과는 2018년 7억원, 2019년 13억원, 2020년 15억원, 2021년 현재 12억원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

## '코로나 백신 저장' 담채 '메디박스' 국내 판매

위니아담체는 초저온 냉동고 '메디박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내 출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메디박스는 92ℓ 용량에 65kg 무게의 소형 제품임에도 1대당 1만8000명분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어 운반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위니아담체는 지난 3월 미국식품의약국(FDA) 등록 완료 후 수출을 위한 의료기기 품

질 경영시스템(ISO13485)인증을 받았으며, 최근 제조인증을 식약처로부터 완료하며 미국에 첫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위니아담체는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멕시코,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검토 중이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고 보건소, 국립병의원 등의 공공 수요처에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이후 민간병원, 제약회사 등 판매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76.19 (+12.31)
↑ 코스닥	1016.46 (+4.90)
↑ 금리(국고채 3년)	1.338 (+0.007)
↑ 환율(USD)	1137.70 (+5.80)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